



그리스도의 기쁜 얼굴 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국가형제회 2015 년 주제)

완전한 기쁨의 신비에 대한 하나의 이해

국가형제회장 Tom Bello, OFS

지난 11 월, 저는 아씨시의 St Clare (Santa Chiara) 성당에 걸려있는 성 다미아노 십자가, 바로 성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앞에서 어느날은 한시간이 넘게 앉아 있기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십자가는 제게 많은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해주실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또 고통때문에 기쁨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예, 고통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손의 못자국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팔뚝과 어깨를 거쳐 그 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떨어집니다. 특히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오른 손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오른편 옆구리에서 흐른 피로 완전히 젖은채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얼굴을 잘 살펴보십시오. 마리아와 요한의 얼굴을 보십시오. 아무도 울고 있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슬퍼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은 크게 떠있고, 슬프고 패배했다기 보다는 즐겁고 승리를 거둔 것 같이 보입니다.

많은 해설가들이 성 다미아노 십자가에 대해 말했듯이, 이 십자가위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리스도 입니다. 그분은 성부께 순명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고, 자신의 행동과 피가 모든 죄악을 씻어내어 천국의 문을 열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처럼 차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 다미아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완전한 기쁨의 신비에 대한 한가지 해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비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관한 것도 아니고, 고통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기쁨은 주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완전하게 봉헌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고통만이 그 길이라면 그렇게 가야겠지요. 고통과 죽음을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프란치스코 성인과 글라라 성녀는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직접, 또는 바로 이 다미아노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 뜻을 알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성 프란치스코의 잔 꽃송이” 제 8 장의 유명한 “완전한 기쁨” 이야기에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미아노 십자가위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어느 겨울날 레오 형제와 같이 페루지아로부터 천사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가고 있었는데, 살을 베어내는 듯한 추위때문에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다. 성인은 조금 앞서 가던 레오 형제를 불러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들이 가는 곳마다 성덕과 감화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다 하여도, 그러나 그러한 것은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놓으시오”하고 말했다.

조금 더 걸다가 성 프란치스코는 그를 두번째로 다시 부르며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가 소경을 눈뜨게 하고, 꺾추를 고쳐주고, 마귀를 내쫓고, 귀머거리들 듣게 하고, 앓은뱅이를 걷게

하고, 병어리를 말하게 하고, 더 위대한 일로 죽은 지 나흘된 사람까지도 부활시킨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은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놓으시오”하고 말했다.

또 좀더 가다가 성프란치스코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가 모든 나라의 말과 온갖 지식과 만가지 책에 능통하고 장래 일뿐만 아니라, 인간 양심의 비밀까지 꿰어 볼 수 있다 하여도 그러한 것은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놓으시오”하고 말했다.

그리고 또 좀더 가다가 성프란치스코는 다시 큰 소리로 불렀다. “하느님의 어린 양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가 천사들의 말을 하고, 별의 궤도와 약초의 효력을 알고 또 땅의 모든 보물을 다 찾아 내게 되고, 새와 물고기와 온갖 짐승, 사람, 들, 초목의 뿌리와 물의 효능을 알고 있다 하여도, 그러한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놓으시오”

좀더 걸어가다가, 성프란치스코는 큰 소리로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가 전교에 아주 능하여 이교도 불신자들을 모두 개심시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이끌어들인다 하여도, 잘 기록해 두시오. 그러한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3km 족히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니, 레오 형제는 몹시 놀라 “사부님, 그렇다면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하고 물으니, 성 프란치스코는 대답하기를 “우리가 비에 젖고, 추위에 얼고, 진창에 빠져 형편없이 되고 배 고파 기진맥진하여 천사의 성 마리아 성당에 도착해 수도원 문을 두드릴 때, 문지기가 화를 내며 ‘당신들은 누구요?’ 하고 묻고, 그 때 ‘당신들의 형제 두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하면, 문지기가 말하기를 ‘거짓말 마라, 너희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세상을 속이고 가난한 사람이 구걸한 것을 빼앗아 먹는 두 명의 악당이지? 썩 물러가거라!’ 그리고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추위와 굶주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깥 쏟아지는 빗속에 우리를 밤중까지 내버려 둘 때 그런 욕설, 인정없는 무자비한 대우, 매정한 거절도 우리가 인내로써 달게 받고 그 사람과 맞서서 싸우거나 불평하지않고 겸손히 애덕으로 ‘문지기가 말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하느님께서 시킨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레오 형제여! 그것이 바로 완전한 기쁨이라고 기록해 놓으시오.

그리고 우리가 끝내 문을 두드리면 문지기가 더 화를 내며 뛰어나와 우리가 나쁜 불량배나 되듯이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려 내쫓으며 ‘여기서 썩 물러가지 못해? 이 더러운 도둑놈들아! 병원에나 찾아가! 여기서는 먹여주지도 재워주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게 될 때, 우리가 만약 애덕의 숭고한 정신에서 인내와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달게 참아 받아 낸다면, 레오 형제여! 그것이 바로 완전한 기쁨이라고 기록해 놓으시오.

그리고 우리가 굶주림과 추위와 어둠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다시 문을 두드리고 울부짖으며,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할 때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이 파렴치족들, 혼 좀 나뉘라’하고 고향치며 웅이가 가득 배인 몽둥이를 들고나와 수도복의 모자를 잡아쥐고는 우리를 땅에 내동댕이쳐, 눈 속에 굴리며 몽둥이의 웅이로 사정없이 매질한다고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달게 참아 받고 복되신 그리스도의 가난을 생각하고 즐거워한다면 레오 형제여! 그런 것이 완전한 기쁨이라고 기록해 놓으시오.

형제여, 자 이제 결론을 들어보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친구들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온갖 은총과 선물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것은 바로 자기를 눌러 이기고, 고통, 모욕, 수치, 불쾌한 것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때문에 달게 참아 받는 그것입니다. 하느님의 다른 선물은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 못됩니다.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느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양 자랑을 합니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회 한국관구, “성 프란치스코의 잔 꽃송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오로지 주님의 은총만으로 자신을 이기고 자신의 수모와 고통까지도 참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나 고통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아무런 계산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때에 완전한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기쁨의 신비를 보십니까? 눈물의 골짜기인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이 세상의 고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 우리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보이는 것입니다. 이 많은 고통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속에서 어떻게 완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 다미아노 십자가의 그리스도 얼굴과,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완전한 기쁨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 자부심, 자신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주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자비를 볼 때, 그 때에만 완전한 기쁨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저에게 말해줍니다.

물론 고통과 죽음까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안에 있으면 고통과 죽음은 하나의 단계입니다. 주님과 함께 받는 고통은 슬픔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며, 주님의 십자가에는 항상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 다미아노 십자가의 그리스도 머리 위에서 그 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즐거움과 확신속에서 영광으로 들어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프란치스코 성인 이야기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아니라, 프란치스코 성인이 자신의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맡기고, 자신의 수모와 고통까지도 주님의 수모와 고통속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은총과, 그 은총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는 완전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왜 아직도 아담과 하와의 죄에 빠져 당신이 되려고 하고, 창조의 중심이 되려고 합니까? 주님, 저희가 주님이 아닌 저희 자신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이 될 필요가 없고 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의 구원계획 속에 있는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 들이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영광과, 저희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당신이 하느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는 교황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하느님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이 되게 하시고, 당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느님이 되시고,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비록 수모와 고통과 죽음을 당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을 하고, 당신의 뜻을 따름으로 저희가 완전한 기쁨의 신비를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